

나무 · 植木 · 造林

창밖 검푸른 수양버들 가지가 함초롬히 비를 맞고 있다. 寒食, 淸明이 겹쳤던 植木日에도 비가 흠뻑 내리더니 금년엔 유난히도 비가 많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庭園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노르웨이」 留學時節 생각했던 일들이 回想되었다.

1963~1964년, 筆者로는 처음 경험하는 외국유학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40代初라서 感受性이 아주 무디지는 않을 때이었던 까닭도 있겠지만 人情風俗, 山川景觀 모두가 珍奇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印象깊었던 것은 그 나라의 樹木의 울창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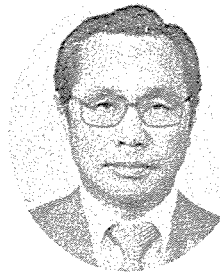
본시 「노르웨이」는 水産業 船舶業과 함께 林業이 국가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나 어테를 가나 首都「오슬로」市の 주택가에도 數十尺이 넘는 巨木의 소나무와 전나무(독일 가문비)가 짝 곱게 솟아 있는데는 볼 때 마다 부러움을 금치 못 하였다. 지금은 많이 좋아 졌으나 그 當時만 해도 우리나라 山은 험벗고 메말라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上空을 지나노라면 샛빨간 黃土의 山허리가 처참하게 내려다 보일 때 때이고 보면 내 눈에는 무엇 보다도 푸르다 못해 새까맣게 보이는 森林과 山골마다 散在하고 있는 푸른 湖水, 맑은 공기 등 北歐의 景觀에 魅惑되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樹木이나 山狀이 그 나라의 풍요함과 국민의 건강한 체격과도 비례하는지 은근히 시새운 마음과 함께 긴 한숨을 뀌하기도 하였다.

「노르웨이」에서 유학을 마치고 구라과 各國, 東南亞, 日本을 거쳐 귀국하는 곳곳에서 그 나라

의 山勢와 樹木이 國勢와 相通함을 再三 확인하게 되었다. 구라과 大陸에 내려와서 보니 獨逸만 해도 울창한 針葉樹의 造林이 人工的으로 잘 된데다 군데 군데 自然生의 闊葉樹가 調和를 이루워 배합되어 있었고 英國과 佛蘭西는 丘陵과 田園에 가지 가지 樹木이 混生하면서 숲과 綠地가 펼쳐지던 것이 南구라과 伊太利와 西班牙에 이르니 태양은 강하고 기후는 溫暖하였으나 산은 메마르고 우리나라 산과 같이 산태도 나고 나무도 꼬부라지고 하늘을 치솟는 울창한 숲은 볼 수 없었다. 隣國 日本만 보드라도 산이 울창하고 原始林도 散在하며 험벗은 산은 볼 수 없다. 그 만큼 그 나라의 생활이 풍요하고 윤택함을 알 수 있다.

우리도 解放前後로 시작하여 6.25동란으로 극도에 달했던 山野의 荒廢相은 우리 겨레의 궁핍상과 일치하고 있다. 1960年初의 국민소득100弗의 기아선상에서 이제 1,300弗의 중진국권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어테를 가 봐도 험벗은 산이나 황폐된 공지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國勢가 先進國과 比肩할 처지에 이르지 못하는 못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의 造林이 아직도 미흡하다. 급한 나머지 아무 나무나 심던 시기는 지났고 보다 계획성 있게 速成樹와 長期樹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우리 子孫代에는 林業國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그 어느 先人이 「來日 죽더라도 오늘 나무를 심겠다」던 말은 정말 感動이 가는 眞言이라고 생각한다.



朴 贊 武
(醫博 · 國立醫療院長)